

국민일보

[단독] 직원들 퇴직금기금으로 150억 주차장 개발하겠다는 적십자사

입력 2026.10.13. 오후 5:00

퇴직금기금 절반은 비현금성 자산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에 수익성 의문
소병훈 의원 “안정적 기금 운영이 먼저”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의 주차장 전경

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150억원 규모의 주차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절반가량이 미수금과 대여금 등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 계획이 부족하다며 적십자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의 노후 주차장을 개발해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직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한 퇴직금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적십자사의 퇴직금기금 상당 부분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적십자사의 퇴직금기금은 총 2919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1456억원으로 전체의 49.9%에 그쳤다. 나머지 1463억원(50.1%)은 기관 대여금과 미수금 등 비현금성 자산이었다.

퇴직급여 재원으로 적립해야 할 부담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십자사 병원회계의 퇴직급여부담금 납부율은 3.3%에 불과했고, 혈액회계의 납부율은 0%였다.

적십자사는 미납된 부담금을 이듬해 대여금으로 전환해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관행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주차장 개발사업의 수익성에도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적십자사가 지난 6월 전문기관에 의뢰한 컨설팅에선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의 개장 여부와 근린생활시설 구성 등을 고려해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투자회수기간을 산정했다.

그러나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난달 17일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상태다.

복지부도 적십자사에 통보한 개선 요구서에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이와 연계한 대규모 수익사업인 서울사무소 주차타워 개축을 퇴직금기금으로 추진하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현금 확보 노력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부재하다”고 명시했다.

적십자사는 주차장 개발사업이 퇴직금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적십자사 측은 “주차장 개발을 통해 증가된 수익은 퇴직금기금으로 환입돼 기금 건전화에 기여하게 된다”며 “주차장 개발사업은 남산 곤돌라 사업과 무관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기금 현금보유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으로 수익이 불확실해진 사업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퇴직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글·사진=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Copyright © 국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8430>
